2020년 한국작가회의 신입회원

시서화 귀 김주대 | **신년인사말** 작가의 시간·문학의 시간 이상국 이사장 | **열린공간** 故 김용균 2주기 추모문화제
알림 잃어버린 1년을 찾아서 민구 | **포토에세이** 꽃잎을 보면 임성용 | **비평릴레이** 모르고 싶어 결국 모르는 것들 김요섭
우리지회 〈부산작가회의〉 '신축'성 있는 코로나 시대 권용욱 | **시/손바닥소설/동화** 현택훈 허택 천향미 김리라

한국작가회의

2021년 1~2월 통권 129호

한국작가회의 회보 | 통권 129호(2021년 1~2월호)
발행인 이상국 편집위원 하명희(위원장) 안희정 이지담 정미영 박혜지(편집장)
발행일 2021년 1월 31일 발행처 (사)한국작가회의 03965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128(마포중앙도서관) 5층
홈페이지 http://www.hanjak.or.kr 전화 02)313-1486 전송 02)2676-1488 디자인 청색종이

맑사

한국작가회의 회보 | 통권 129호(2021년 1~2월호) | 발행일 2021년 1월 31일 | 발행처 (사)한국작가회의
발행인 이상국 | 편집위원 하명희(위원장) 안희정 이지담 정미영 박혜지(편집장)
홈페이지 http://www.hanjak.or.kr | 전화 02)313-1486 | 전송 02)2676-1488 | 디자인 청색종이

04 시서화 귀 김주대

05 신년인사말 작가의 시간·문학의 시간 이상국 이사장

06 열린공간 故 김용균 2주기 추모문화제

08 알림 잃어버린 1년을 찾아서 민구

10 시 동카름 삼춘 현택훈

12 손바닥소설 썩은 웃음 허택

14 포토에세이 꽃잎을 보면 임성용

16 시 발바닥 경전 천향미

18 비평릴레이 모르고 싶어 결국 모르는 것들 김요섭

20 동화 생쥐 영혼의 복수 김리라

22 우리지회 〈부산작가회의〉 '신축'성 있는 코로나 시대 권용욱

25 작가회의 통신

28 사무처 소식

29 후원 및 특별회비 납부 현황

30 회비 납부 현황

※ 바로잡습니다.

한국작가회의 회보 통권 128호(2020년 11~12월호) 26쪽 [작가회의 통신]의 〈부산작가회의〉 소식은 〈부천작가회의〉 소식이 잘못 표기된 것이므로 바로잡습니다. 귀한 소식 전해 주신 부천작가회의 회원님들과 잘못된 표기로 혼란스러우셨을 부산작가회의 회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회보를 꼼꼼히 읽고 회보편집위원회에 오류를 제보해 주신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편집에 임하겠습니다.

귀

소리를 멀리 보내기 위한 무게였던 적도 있었지만 범종은 소리를 토한 뒤 적막을 모으기 위해 땅으로 열린 귀야. 당좌를 얻어맞은 쇠는 몸부림치고 끓겠지. 냄비 뚜껑을 잠깐 열듯이 넘치지 않기 위해 경계를 넘어 울음을 내보냈던 것뿐 범종은 울기 위한 뜨거움이 아니라 듣기 위해 차가워진 귀였던 거지. 종소리는 먼 데를 물들이고 비처럼 쏟아져 꽃을 피우는데 범종의 귓구멍은 땅으로 얼마나 캄캄하게 열려 있는지. 절마다 귀를 걸어놓고 부처를 찾지만 사람들 머리 양쪽에 범종 두 개 이미 무겁네.

– 김주대 시를 쓰고 붓을 잡다

작가의 시간·문학의 시간

이상국 이사장

조지 오웰은 그의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에서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 몇 가지를 밝혔다. 요약하면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미학적 열정, 그리고 역사적 충동과 정치적 목적 등이 그것이다.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작가들이 글을 쓰는 이유나 창작에 대한 충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사물에 대한 미적 감각의 표현이나 자기를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충동을 작가들의 개인적 욕구라고 할 수 있다면 역사적 충동과 정치적 이유는 작가의 사회적 관계나 문학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그는 "역사적 충동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진실을 알아내고 그것을 후세를 위하여 보존하는 욕구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으로는 "세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며 분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남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욕구"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지 오웰은 유토피아에 대한 역설로 『1984』를 썼거나 『동물농장』이라는 우화로 권력을 풍자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작가로서의 역사인식이기도 하고 정치적 주체로서 정치의식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일제 식민지배에서 전쟁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세와 분단의 현실 조건은 작가들에게 진영의 선택과 정치적 편향성을 요구했고 그것은 오늘에도 여전히 작가들의 작품이나 행위를 통하여 작동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네루다는 어디에선가 '현실주의자가 아닌 시인은 죽은 시인이고 오직 현실주의적이기만 한 시인도 죽은 시인'이라고 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시인은 단지 자기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으므로 슬픈 일'이며 나아가 '모든 면에서 이성적인 시인은 모든 얼간이들까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엄청 슬픈 일'이라고 했다. 그의 말을 따라가 보면 결국 그는 민중의 현실과 꿈을 통하여 이른바 '불과 얼음의 시련을 경험한' 문학 혹은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인적 작가정신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촛불 혁명 이후에도 작가들의 역사적 또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끊이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맘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는 초국가적 검찰 권력의 민낯을 마주하는 역겨움이나 '사람이 먼저'라며 출발했으나 대기업에 대한 두려움과 기계 앞에 게걸음 치는 촛불 정부의 희망고문은 작가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용인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민주와 정의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지구적 재앙은 짙은 안개처럼 지척을 분간하기 어렵다. 그것은 전 세계가 국경을 걸어 잠그고 전 인류가 각자도생에 정신이 없는 위기의 시간이기도 하다. 인간이 인간을 경계해야 하고 마스크에 생존을 의지했던 지난해도 그랬지만 새해에도 작가들은 스스로에게 많은 것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포와 불안과 우울이 짓누르는 이 난데없는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는 문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전신을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격리와 비대면의 세계에 갇힌 존재로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를 성찰하는 시간이야말로 스스로 가두기를 마다하지 않는 작가들의 시간이자 문학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국 1976년 『심상』으로 등단. 시집으로 『집은 아직 따뜻하다』 『뿔을 적시며』 『달은 아직 그 달이다』, 문학자전 『국수』 등이 있다. 백석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1

2

3

4

5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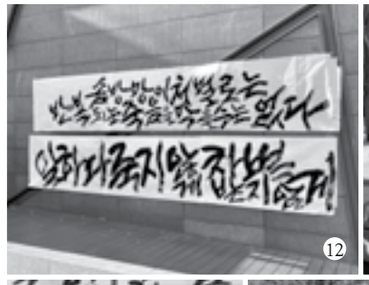
1. 인사말로 문을 여는 송경동 자유실천위원장
2. 행사에 앞서 준비를 하는 젊은작가포럼 회원들
3. 사회를 맡은 양순모 평론가
4. 시 「염하기 좋은 나라」를 낭독하는 이범근 시인
5. 시 「해와 파열」을 낭독하는 윤은성 시인
6. 시 「비정규」를 낭독하는 최지인 시인
7. 시 「무생물」을 낭독하는 김종연 시인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2.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13. 시 「필기체」 낭독을 준비하는 전호석 시인
14. 시 「풀」을 낭독하는 정우신 시인
15. 시 「화사」를 낭독하는 최백규 시인
16. 격문을 들고 공원 안을 행진했다.
17. 故 김용균 2주기 추모문화제에 함께한 한국작가회의 회원들

잃어버린 1년을 찾아서 — 2020년 업무 보고 및 2021년 계획

민구

연번	일자	구분	주요 내용
1	2020.01.02.	시무식	신년 인사, 신년 결의
2	2020.01.29.	감사	2019년 종합 감사
3	2020.02.01.	정례이사회	1분기 정례이사회
4	2020.02.15.	정기총회	새 임원 선출 총회
5	2020.02.18.	사무처 인수인계	사무처 업무 인수인계
6	2020.02.20.	『내일을여는작가』 출간	76호(2020. 상반기) 출간
7	2020.03.31.	회보 발행	124호(1~4월) 발행
8	2020.04.06.	작은서점 지원사업 공고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9	2020.04.11.	정례이사회	2분기 정례이사회
10	2020.05.09.	5·18 40주년 기념 낭독회	온라인 무관객 낭독 진행
11	2020.05.29.	회보 발행	125호(5~6월) 발행
12	2020.06.19.	탄생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백 년 동안의 낭독
13	2020.06.20.	오월문학제	오월항쟁 40주기 오월문학제
14	2020.07.01.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군부대 방문 문학 프로그램
15	2020.07.08.	감사	2020년 상반기 감사
16	2020.07.11.	정례이사회	3분기 정례이사회
17	2020.07.31.	회보 발행	126호(7~8월) 발행
18	2020.08.31.	『내일을여는작가』 출간	77호(2020. 하반기) 출간
19	2020.09.26.	전국청소년백일장	비대면 본선 백일장 진행
20	2020.09.29.	회보 발행	127호(9~10월) 발행
21	2020.10.16.	전국문학인 충북대회	초청 강연 및 세미나 참석
22	2020.10.31.	정례이사회	4분기 정례이사회
23	2020.11.16.	평론분과 좌담	소셜미디어 시대의 창작방법론
24	2020.11.14.	합동 시상식	아름다운 작가상 등 합동 시상
25	2020.11.20.	전태일 50주기 기념 낭독회	추모시 낭독 및 가수 공연
26	2020.11.31.	회보 발행	128호(11~12월) 발행
27	2020.12.12.	故 김용균 2주기 추모문화제	젊은작가포럼 시 낭송
28	~2021.12.31.	경의선 책거리 위탁 운영	책 생태계 조성 및 책 문화 활성화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리라고 예상한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방역과 치료에 매진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싸우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작가회의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작년과 올해의 업무 및 주요 사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매년 1월이 되면 시무식을 진행합니다. 사무처 직원과 작은서점 지원사업 담당 직원들이 모여서 회원들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1월은 종합감사가 있는 달입니다. 총회에서 선출된 두 분의 감사위원을 모시고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전 년도에 진행한 사업과 업무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여 연 2회에 걸쳐 감사를 받습니다. 지적받은 내용은 잊지 않고 다음 감사 이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월에는 정례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작가회의에서는 정관에 명시(연 4회 이상)된 대로 분기에 한 번씩 정례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다룹니다. 2020년에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임원 인준에 관한 건, 디지털콘텐츠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신입회원 입회심의 승인에 관한 건, 정관개정(안) 심의·의결의 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 이사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어려움 없이 이사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2월에는 반년간지 『내일을여는작가』 76호가 출간되었습니다. 임기를 마치신 오창은 편집주간과 여덟 분의 편집위원께서 2년간 책을 만드느라 고생하셨고, 특히 5년 내에 작품을 실은 작가에게는 재청탁을 배제하고 지역작가 참여를 독려하는 코너를 개설하는 등 보다 나은 책을 만들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내일을여는작가』는 2월과 8월, 연 2회 출간하며 2020년 하반기호인 77호부터는 박수연 편집주간과 여섯 분의 편집위원들을 모시고 거리두기 시대에 책을 묶는 일과 각 지역의 젊은 문인들을 찾아서 새로운 목소리를 확인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회원만이 아니라 문학을 사랑하는 일반 독자들이 쉽게 책을 구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구매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연 2회 출간하는 『내일을여는작가』와 함께 격월로 〈회보〉를 발행합니다. 하명희 회보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네 분의 편집위원이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서도 의기투합하여 회원들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필자를 선정하고 지역 행사가 있을 경우 각 지회, 지부의 처장님과 국장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행사 및 공연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회보를 보시고 나서 회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편집위원회와 상의하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작년 5월은 오월항쟁 40주기를 맞이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젊은작가포럼과 함께 5·18 40주년 기념 낭독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를 기획했습니다. 낭독회는 상황에 맞게 관객을 받지는 않았지만 참여자가 서로의 관객이 되어 주었고 젊은작가포럼 회원 다수가 참여해서 1980년 광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은 젊은작가포럼의 참여가 두드러진 해였습니다. 6월에 치른 탄생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백 년 동안의 낭독〉 행사 때도 오랫동안 '젊포' 활동을 한 이태형 소설가부터 신입회원인 양순모 평론가까지 두루 참여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모든 기념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작가회의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선배 회원들께 의견을 구했고 젊포 회원들이 추진력 있게 진행하여 〈전태일 50주기 기념 낭독회〉와 경의선 책거리에서 준비한 〈젊은 작가 33인 展〉 등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9월에는 26회를 맞이한 전국청소년백일장을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는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전국고교생백일장'에서 '전국청소년백일장'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원래는 매년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애초에 계획한 대로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처와 백일장준비위원회가 함께 고민을 거듭한 끝에 1차 예심을 통해 30명 내외의 청소년만을 선발하여 본선에 참가시켰습니다. 예년 같으면 발 디딜 곳 없어야 할 도서관 대강당에서 거리를 둔 채 글을 쓰는 참가자들을 보니 어딘가 안쓰러웠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한 백일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할까요? 답답하지만 사무처에서는 인내를 잃지 않고 회원 여러분과 담당 직원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0월에는 나흘간에 걸쳐 '평화가 통일이다'라는 주제로 〈전국문학인 충북대회〉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문학인대회〉는 전국의 작가회의 회원들이 다 같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이며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00여 명의 인원을 맞을 준비를 하던 충북작가회의에서도 갑자기 악화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 치르는 비대면 전국대회임에도 초청 강연과 세미나, 시 노래 공연 등이 라이브 방식으로 잘 전달되어 제한된 화면으로도 충북 예술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월에는 거의 매주 〈평론분과 좌담〉, 〈한국작가회의 합동 시상식〉, 〈전태일 50주기 기념 낭독회〉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면 관계상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순 없지만 사무처와 각 행사 준비위원회에서는 악조건 속에서도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식을 고민하고 의미를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여러분들께서 한국작가회의의 발전을 위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올해와 내년에는 코로나로 잃어버린 1년을 되찾아오는 데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작가회의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몇 가지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합니다. 〈찾아가는 병영도서관〉과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찾아가는 병영도서관〉은 2인 1조로 구성된 작가들이 전국의 군부대에 직접 방문하여 장병들과 문학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은 지역서점과 작가를 연결하여 작은서점들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작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뢰와 추진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맡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작년 한 해 회원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리는 장면을 상상하곤 했지만 기대만큼 되지 않아 몹시 아쉽습니다. 지금 마음으로 드리는 인사를 찾아뵙고 말로 전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며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민구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배가 산으로 간다』가 있음. 현 한국작가회의 사무처장.

동카름 삼춘

현택훈

동카름 가는 길엔 숙대낭이 키가 컸다
그 마을에 살던 삼춘
일본 삼춘이나 동카름 삼춘이라 불렀다
두린 내게 용돈이라며 몇 만 원을 쥐어주던 사름
식게멩질엔 빠지지 않던 동카름 삼춘
몇 해 거르더니 이제는 구신되엉 찾아왐싱가
젊었을 때 일본으로 강 돈을 하영 벌었다는 삼춘
음복을 하기 시작하면 시작되는 이야기
전기문 몇 권은 나오겠다
늘 양복을 반조롱허게 차려입던 삼춘
나이 들엉 얼금얼금헌 얼굴
오랜 신장투석에 지친 몸
가끔씩 일본말도 써가멍 웃둑지를 펴던 사름
멩질 먹으래 동카름 삼춘집에 강 보민
일본제 가전제품에 눈이 휘둥그레져신디
또 시작되는 일본에서 일할 때 이야기
눈물을 따르는 길을, 노래도 가끔 흥얼거리며
정종 한 병을 다 비울 때까지
이야기는 함박눈처럼 그치지 않았지
부엌에서는 보비닥질허는 설거지 소리
옆구리를 움켜쥔 채 말을 이어가던 동카름 삼춘
동카름 가는 길에 있던 키 큰 숙대낭도
눈물을 따르는 길 따라 가고

현택훈 2007년 『시와정신』으로 등단. 시집 『지구 레코드』 『남방큰돌고래』 『난 아무 곳에도 가지 않아요』가 있음.

여성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의 눈!

김선향 시집

F등급 영화

● 172쪽 / 10,000원

**김선향 시인의 시는 여리되 강하고,
부드럽게 마음을 사용하되 심지가 굳다**

『F등급 영화』는 이전 시집보다 더 경쾌하게 때로는 비통하게 여성과 여성의 '역사'를 노래한다. 한편으로는 현실에 대한 직접적 목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진전된 인식을 보여주면서 페미니즘 시의 다른 차원을 열어젖혔다.

시인은 이 세계의 사회적 약자를 관심에서 배제하지 않고 숭고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받들어 모신다. 이주민, 난민, 철거민, 그리고 감정 노동자에 대해 공동체가 온당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처우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당찬 목소리로 사회적 주제를 발언한다. 여성성의 주체화 문제를 크게 부각시킨 점도 그러하다. 하지만 김선향 시인의 시에는 서정의 '쪽화단'이 함께 있다. 이 대목에서 김선향 시인의 시는 보다 새롭고 특별하게 탄생한다.

_____문태준 시인

삶창 전화 02-848-3097 팩스 02-848-3094

썩은 웃음

허택

할아버지, 할아버지, 웃어봐. 여자아이는 또 해맑게 웃으며 내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내 무릎을 흔들면서 쫑알거린다. 오늘은 여자아이가 더욱 무섭다. 여자아이는 웃고 있지만 나는 몸이 덜덜 떨린다. 코끝에서 가을바람이 달콤하게 살랑거린다. 바람결에 여자아이 머릿결이 나뭇잎처럼 나부낀다. 오늘도 웃을 수 없다. 여자아이 웃음을 따라할 수 없다. 안면 표정근이 아프게 실룩거릴 뿐이다. 할아버지, 나처럼 웃어봐. 이렇게. 웃는 표정 지으며 쫑알거린다. 웃음이 해맑다. 햇빛이 여자아이 얼굴에 환하게 퍼진다. 바람결에 웃음이 꽃잎처럼 날린다. 살랑살랑 웃음이 나에게로 날아온다. 따라할 수 없다. 웃는 것이 힘들다. 울지도 못한다. 여자아이 눈, 코, 입술이 웃는 대로 예쁘게 움직인다. 입술이 웃음 짓는 대로 부드럽게 벌어진다. 치아들이 입안에서 웃음과 함께 반짝인다. 예쁘다. 머릿속에서 여자아이 웃음이 어지럽게 빙빙 돈다. 함께 웃고 싶다. 입술이, 눈가가, 콧등이 찌그러진다. 아프다. 할아버지, 나처럼 웃어봐. 어제도 가르쳐 줬잖아. 오늘따라 더욱 쫑알거린다. 바람은 우리 곁을 달콤하게 맴돈다. 공원 저쪽 벤치에서 할머니는 오늘도 우리를 웃으며 쳐다본다. 편하게 웃고 있다.

일주일 전 퇴근길 운전 중이었다. 울산 막내 남동생 전화였다. 급하게 근처 공터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다. 또 스트레스 받는 내용이었다. 일주일 내로 1억을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진다는 말과 함께. 통화를 마친 후 답답했다. 운전대를 움직일 수 없었다. 차에서 내려 둘러보니 공원 벤치가 보였다. 수년간 출퇴근하면서 지나다녔어도 아파트 근처에 공원이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 미친놈, 어떻게 살았나? 나무들로 둘러싸인 조그마한 공원이다. 단풍나무 밑 벤치는 따스했다. 달콤하게 살랑거리는 바람과 따스한 햇빛만이 벤치에 있었다. 벤치에 숨고 싶었다. 저녁놀이 찾아오면 공원이 더욱 예쁠 것 같았다. 벤치는 나만의 공간이 됐다. 단풍나무 잎이 편하게 흔들거렸다. 잠시 눈을 감았다. 오로지 나 혼자였다. 그 다음날도 단풍나무 밑 벤치를 잠시 찾았다. 오후 6시의 휴식이 됐다.

5일 전이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잠시 스치는 잠결에 예쁜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할아버지라는 말을 그냥 귓가로 스쳐 들었다. 두 번째로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깜짝 놀랐다. 여자아이가 나를 불렀다. 할아버지? 여자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에 웃음을 담고 있었다. 다섯 살쯤 되는 귀여운 여자아이다. 놀라서 그냥 멍하게 여자아이를 쳐다봤다. 우연히 알게 된 나만의 휴식처에 불청객이 찾아들었다. 공격할 수 없는 불청객이었다. 마냥 웃기만하는 어린아이였다. 할아버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얼른 핸드폰으로 얼굴을 봤다. 오십 살의 석고상 같은 얼굴이 있을 뿐이었다. 여자아이는 할아버지라고 했다. 나는 아니다. 하지만 갑자기 참담했다. 흙탕 속을 뒹구는 기분이다. 어린아이 눈 속에 거짓이 없다. 다시 한 번 핸드폰으로 얼굴을 쳐다봤다. 얼굴에 온통 주름들이 깊게 파였다. 움직여 보지만 주름이 펴지지 않았다. 지독한 노인병에 걸렸다. 어린아이 눈을 피해 얼른 일어났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급하게 공원을 벗어났다. 자동차 거울에도 주름진 얼굴만 보였다. 불쾌했고 화가 치솟았다. 할아버지라니? 내 나이에? 어린아이 눈동자 속에 할아버지가 보였다. 할아버지라는 말은 계속 뇌신경을 자극했다.

다음날 차를 저절로 공원 옆에 세웠다. 단풍나무 밑 벤치가 그리웠다. 벤치에 앉자마자 여자아이가 나를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내 곁으로 뛰어왔다. 어린아이 웃음은 여전히 해맑았다. 할아버지, 어젠 미안해.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천진난만한 말이다. 해맑게 웃으며 내 손안에 알사탕을 쥐여 줬다. 저쪽 건너 벤치에서 할머니가 웃으며 우리를 쳐다봤다. 어린아이 웃음이 한없이 커졌다.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멍하게 웃는 얼굴만 쳐다봤다. 여자아이 웃음 속에서 내 얼굴이 보였다. 어린아이 웃음 속에서 나도 마냥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서 바닷가 모래사장을 뛰면서 즐겁게 웃던 옛 모습이 보였다. 손으로 얼굴을 만졌다. 거칠고 주름진 얼굴만 만져졌다. 안면 표정근이 굳어졌다. 언제 웃음을 잃었지? 기억조차 없다. 오십 살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어제였다. 공원 단풍나무 밑 벤치는 힘든 하루를 홀로 정리하기 좋았다. 벤치에 앉자마자 저쪽 벤치에서 그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가지 마라. 싫어. 아저씨가 혼자 있고 싶어 해. 아저씨가 아냐. 불쌍한 할아버지야. 오늘은 할머니랑 있다가 집에 가자. 으응응. 투정도 귀엽다. 내가 불쌍한 할아버지? 그럴지도 모르지. 얼마 후 갑자기 저쪽 벤치에서 까르르 웃음이 터지며 내 쪽으로 달려왔다. 할아버지, 저기 길고양이를 봐. 과자 먹으려고 서로 뒹굴며 싸우고 있어. 공원 한쪽 모퉁이에서 여자아이가 던져준 과자를 갈색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가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중이었다. 하는 짓들이 우스운 모양이다. 내가 웃는 거 가르쳐줄게. 나 따라 웃어봐. 까르르 까르르. 여자아이는 웃지 않는 내가 이상한지 빤히 보더니 까르르 까르르 소리 내 웃었다. 따라할 수 없다. 몇 번 웃으려고 애써봤다. 그때 할머니 부름에 어린아이는 걸음을 돌렸다. 내일까지 웃는 연습하고 와. 아쉬워했다. 오늘 아침, 세수하면서 거울 보며 웃어봤다. 웃음이 썩었다. 목이 쉬어서 웃음소리가 나지 않는다. 언제부터 웃음이 썩었지? 거울 속에 썩은 웃음만 비친다. 웃음이 썩은 줄도 몰랐다. 매일 웃었는데……. 하루 종일 거울 속에서 웃음을 연습했다. 썩은 웃음만 만들어졌다. 꺼억꺼억 듣기 싫은 소리만 목구멍에서 새어 나왔다.

퇴근길, 어린아이가 무섭다. 하지만 공원 벤치는 그립다. 오후 6시의 벤치는 한가롭다. 오늘따라 여자아이는 안타까운 듯 웃음소리에 한숨까지 깃들어 있다. 할아버지는 왜 웃지 못하지? 여자아이는 슬프게 한숨짓는다. 여자아이 큰 눈에 물기가 서린다. 여자아이 슬픔조차 깨끗하다. 깨끗해서 무섭다. 들숨날숨이 가빠진다. 가슴이 굳어진다. 천진난만하게 웃고 싶다. 아저씨라 불리고 싶다. 가을바람 따라 내가 어린아이 눈 속으로 스며든다. 색동옷 입고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부렸다. 나도 천진난만하게 웃은 적이 있다. 떼쓰며 울기도 했다. 지금은 다 잃어버렸다. 웃어봐. 이렇게. 여자아이는 울면서 웃고 있다. 가슴이 울컥거린다. 머릿속이 텅 비어진다. 눈을 꼭 감았다. 뱃속 깊이 들숨날숨을 쉰다. 배가 아프다. 갑자기 할머니 핸드폰에서 노래가 나온다. 허영란의 〈날개〉라는 노래가 흐른다. 저 노래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야. 어린아이가 따라 부른다. 일어나라, 아이야. 날아라, 날아라, 고뇌에 찬 인생이여. 고뇌에 빠진 젊은 시절 소주 한 잔 들이키며 밤새 읊조렸던 노래다. 힘든 세월에 노래를 잊고 살았다. 노래 따라 순진했던 젊은 시절이 떠오른다. 노래가 멍든 마음을 탁 친다. 멍든 마음이 노래 따라 울렁거린다. 노래가 폭탄이 돼 마음을 폭발시킨다. 그 이후 노래를 잊었고, 웃음이 썩어갔어. 머릿속이 터질 듯 아프다. 욱! 욱! 콧속 핏줄이 심한 두통으로 터진다. 콧속에서 핏내음이 퍼진다. 핏망울이 손등에 떨어진다. 할아버지가 코피 흘려. 여자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기 시작한다. 여자아이 울음이 깨끗하다. 울음도 따라하고 싶다. 코피가 입가로 흐르면서 커억커억 목에서 울음소리가 터진다. 예전에 해맑게 웃었고, 깨끗하게 울었어. 웃을 수 있을 거야. 여자아이 손을 꼭 잡고 웃으려고 힘껏 목청에 힘을 준다. 겨우 웃음이 입에서 새어 나온다. 하… 하… 하…

허택 2008년 『문학사상』 신인상으로 등단. 단편집 『리브 앤 다이』 『몸의 소리들』 『대사증후군』이 있음.

꽃잎을 보면

임성용

꽃잎을 보면, 꽃이 피어나는 것이 믿기지 않아. 피어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꽃잎은 시간 속에 있지 않아. 시간은 가혹하거나 평화롭거나, 끝내 모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있지. 하지만 꽃잎은 시간의 마디에서 불쑥 튀어나온 관절염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뜨려 버려. 꽃잎은 시간을 괴롭게 하는 아름다움이야.

임성용 2018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등단. 소설집 『기록자들』이 있음.

발바닥 경전

천향미

늦은 퇴근길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여자의 발을 본다
빨간 페디큐어 바른 하얀 발
옹이 많은 내 발바닥이 부끄러워 슬며시 감추고 싶다
앞만 보고 걸어 온 걸음에 제동을 걸고 싶다

엄지발가락처럼 삐뚤어질 거야
무지외반의 아우성이 들린다
기껏해야 바닥, 발바닥 때문에
어루만지지 못했던 직립의 시간에 통점이 잡힌다

발자국에 울음까지 가두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첫 울음 터트린 아이의 발에 잉크를 묻혀 탁본할 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축복을 기원하며
울음의 가장 깊은 곳이 바닥이라는 것 몰랐다

가만히 발바닥을 쓸어보며 티눈 박인 생이라니
돌보지 못한 바닥의 혈 자리를 짚어 본다
아프다 아프다
바닥에 누운 지압점이 함께 울어주는 밤이다

천향미 2007년 계간 『서시』로 등단. 시집 『바다빛에 물들기』가 있음.

“시를 쓰는 일은 혼(魂)의 영역에서 작동한다.”

금은돌의 예술 산책

시와 미술과 문화를 위한 예술 에세이

금은돌 지음

글·표지화 금은돌 / 반양장 / 244쪽 / 15,000원

장르를 넘나들며 ‘자유’에 다다른 시인 금은돌의 유작

봄에 석을 보내고 겨울이다. 『금은돌의 예술 산책』은 석이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여 출판을 준비하던 책이다. 이 책은 그림을 그리고 시를 썼던 석의 길지 않은 예술 활동을 기록한 자화상이자 예술론 노트라고 할 수 있다. 석은 연구자, 시인, 비평가, 화가의 삶을 살았다. 석이 걷고자 하는 길은 아주 길었다. 계속 걸어야 한다고 말해놓고 석은 세상의 뒤란으로 사라졌다.

전성태 소설가

003 서문 - 아들 조원효 시인 / 007 **기다림의 나무, 통과하는 나무** — 화가와 시인의 관찰 일기 / 030 **나선의 시학과 선언하는 자** — 훈데르트바서와 이제니 / 052 **거동 수상자의 걸음과 걸음** — 마르셀 뒤샹과 이상의 운동성을 중심으로 / 073 **침묵 한 걸음 앞의 시** — 자코메티와 김수영 / 095 **기형도와 M.C. 에셔** — 스무 살, 미발표작을 중심으로 / 112 **대화, 불길한 몸으로 시작하는** — 이름 없는 이름, 권박의 시작 / 144 **방탄소년단의 〈봄날〉에 관한 에세이** / 164 **낙서/꿈/놀이에 관한 스케치** — 장 미셸 바스키아를 중심으로 / 194 **6년 동안의 ‘선물’** / 201 **디지털 산책자의 광장과 캐릭터** / 237 발문 - 전성태 소설가

publishers
청색종이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2가 14-15 청색종이
Tel 010-4327-3810 | Fax 02-2636-5812 | theotherk@gmail.com

모르고 싶어 결국 모르는 것들

김요섭

2016년 구의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의 가방 안에는 컵라면이 하나 있었다는 기사를 의아하게 읽은 적이 있다. 컵라면 하나 샀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그게 왜 기삿거리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 의문은 용역업체 직원 한 사람이 담당했던 스크린도어의 숫자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게 된 뒤에 풀렸다. 5분이 안 되는 컵라면이 익는 시간만이 그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점심을 먹고 학교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조교 사무실로 올라가는 동안에 기사를 읽으며 이해하게 되었다. 이해되지 않던 일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내 삶과 너무 멀리서 대비되는 자리에 그의 삶이 있었다는 것만이 분명해질 뿐이었다.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단지 몇 분의 시간만 주어진 삶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그것은 내 삶이 아니어서 보이지 않는 장면들이었다. 그리고 그 삶이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금방 잊었다. 잊고 있던 그를 떠올리게 한 것은 어느 잘못 도착한 사과였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된 변창흠이 구의역 사고 당시에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시정 전체를 다 흔든다"는 말을 했던 사실이 보도되었다. 장관 후보자였던 변창흠은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기 위해서 고 김용균 씨의 유족을 찾아갔다. 구의역 사고의 김군을 김용균으로 착각했던 것일까? 그의 말처럼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모독당한 이를 찾아가 사과할 수 있었을 것이다.(물론 그는 구의역 사고의 김군이 김용균이 아님을 알았다. 단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문제로 여론의 주목을 받던 김용균의 유족을 찾아가 자신의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신경을 썼을 것이다.) 고작 몇 분의 시간도 가질 수 없는 이들이 어떻게 신경을 써야 안전해질 수 있을까? 규정상 두 사람이 함께 가야 하는 일을, 어느 역에서 고장이 나든 1시간 안에 도착해야 한다는 또 다른 규정 때문에 동료를 다른 곳에 보내고 혼자 맡아야 했던 사람은 어떻게 신경을 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이제는 장관이 된 그는 아마도 그런 삶을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가방 속의 컵라면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삶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은 조금도 낯설지 않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말을 했던 순간이 나에게도 많았으니. 물론 때로 어떤 무지는 의도적이기도 하다. "알기 때문에 모르고 싶어 하고 모르고 싶기 때문에 결국은 모른다"(황정은, 『야만적인 앨리스씨』, 문학동네, 2013, 40쪽)는 의식적 무지가 많은 병리로부터 눈감고 아무렇지 않은 듯 오늘을 살아가게 할 수 있으니까. 구의역 사고 당시에 장관의 무지도, 실은 당시 서울시장의 책임을 인정하길 원치 않아 사고의 조건을 모르고 싶어 모르는 '의식적 무지'였다. 그런데 그 노동의 조건에 결코 무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모든 작업은 2인 1조로 해야 하고, 스크린도어가 고장나면 1시간 내에 도착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고도 50개 역을 단 다섯 명이 관리하게 외주업체에 발주한 사람 말이다. 규정에 따라야 하고, 기계의 고장 빈도를 확인해서 필요한 인력을 계산해야 하는 이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죽은 청년 노동자가 안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던 그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사람을 죽이고 있으리라는 걸 알지 못했을까?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모를 수 있었다. 그들이 환산한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 "회사에서 정한 최종 시한이 10월 10일입니다. 그때까지 일이 마무리되면 인원을 줄이고 말고 할 필요도 없겠죠.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애써주십쇼."(김혜진, 『9번의 일』, 한겨레출판사, 2019, 231쪽.)

김혜진의 『9번의 일』의 그는 회사의 희망퇴직 요구를 거부했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고, 달성이 불가능한 실적을 달성하려다가 점점 더 밑으로 추락해간다. 노조의 농성과 법원의 판결로 그의 복직이 결정은 되었지만, 하청업체에서 현장 업무를 완료한 뒤에 본사로 돌아오는 조건을 제안 받는다. 대형 통신탑을 건설하는 현장 업무는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의 충돌로 더디게 진행된다. 회사는 정해진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현장의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다급해진 그는 주민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에 작업 트럭을 운전한다. 그 차에 주민이 매달려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로. 주민의 죽음은 그의 과실로 치부될 뿐, 회사는 주민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소송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책임을 무마한다. 그 모든 상황은 그가 제대로 일을 하다가 저지른 잘못의 결과가 될 뿐이다.

복직의 조급함 때문에 더 기다릴 수도 없는 그에게 회사는 그저 시간과 업무를 정해주었을 뿐이다. 그 목표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안전 같은 일은 신경 쓰지 못한 채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회사는 알 필요가 없다. 그들은 단지 노동자가 정해진 일을 끝냈는가를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것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알고 싶지 않은 모든 과정은 누군가의 일이 될 뿐이다. 잘못된 환경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일을 미숙하게 한 누군가의 실수로 인지할 수 있다면 회사는 그 책임을 모를 수 있다. 그가 견디어내야 했던 일의 고단하고 위태로운 양상과 관계들은 '기한'과 '성과'로 추상화된다. 회사는 기한과 성과에 대해서는 무지하지 않다. 회사는 삶의 과정인 일을 수치로 환산해서만 인지한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의 일을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밀어낼 수 있다.

바우만은 사회적 관계의 원격화가 도덕적 의무를 약화하는 기술적 장치라고 말한다. 업무를 결정하는 사람과 이를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을 때, 도덕적 의무를 따라야 할 사회적 압력이 약화된다. 회사는 노동을 기한과 성과로 환산함으로써 노동자와 자신의 사회적 거리를 벌려놓는다. 노동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를 회사는 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해서 도덕적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달성해야 할 성과를 내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조금만 신경 썼으면"이라고 탓할 수 있을 뿐이다. 노동자의 삶을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노동은 정밀한 수치로 환산된다. 기한도, 성과도 될 수 없는 위험과 모멸은 수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 더는 보이지 않는다. 회사는 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치로 환산하고, 그래서 일의 과정이 무너뜨린 삶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었다. 그리고 몰랐으므로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하이에크는 시장을 화폐를 통해 정보가 교환되는 장으로 보았다.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은 자본의 흐름을 통해 가치의 변화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은 그 자체로 무언가에 대한 앎인 셈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시장을 통해서 거래될 수 없고, 그래서 돈이 될 수 없어 정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회사는 수익을 통해서만 노동자의 삶을 알려고 한다. 그래서 수익이 될 수 없거나, 아니면 수익에 방해가 되는 모멸과 위험을 모르려고 한다. 이런 의도적인 무지는 삶에서 너무 당연히 가져야 할 것들을 빼앗는다. 『9번의 일』에서 그가 바랐던 "존중과 이해, 감사와 예의 같은 거창해 보이지만 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168쪽)들처럼. 그리고 안전과 생명처럼 너무 당연한 것들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게 해야 하고, 수치로 환산된 삶들을 정확한 이야기로 풀어가야만 한다. 무지는 무책임이다.

김요섭 제22회 〈창비신인평론상〉으로 등단. 〈요즘비평포럼〉에서 활동 중.

생쥐 영혼의 복수

김리라

학교 가는 길에 길가에 누워 있는 쥐를 보았다. 꼼짝하지 않고 축 늘어져 있는 게 죽은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휙 돌리고 얼른 지나가려고 했다.

"와 쥐다! 가까이 가 보자."

뒤에서 성태 목소리가 들렸다. 걸음을 재촉하려는데 성태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성태 뒤에는 창희랑 현우도 있었다. 성태는 우리 셋을 쥐 쪽으로 밀었다. 성태는 죽은 바퀴벌레도 손으로 잡은 적 있다. 이번에도 무사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만 같았다. 지난번처럼 바퀴벌레 몸통을 엄지와 검지로 집고는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닐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번에는 쥐다. 어쩌면 난 기절할지도 모른다.

"차에 치였나봐."

창희 눈이 쥐방울만해졌다. 현우는 두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다.

"차에 치였으면 호떡처럼 납작해졌겠지. 고양이한테 당한 게 분명해. 생쥐는 고양이처럼 날쌔지도 용감하지도 않아. 겁을 잔뜩 먹고 도망치다가 당했을 거야. 겁쟁이처럼."

성태는 마치 자기가 고양이라도 된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 가자."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성태가 내 팔을 꽉 잡았다.

"넌 바퀴벌레 한 마리도 무서워하니까 생쥐는 엄청 무섭겠다. 겨우 바퀴벌레 한 마리 때문에 울면서 도망치다니. 이 겁쟁이야."

성태는 눈썹을 꿈틀거리며 내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성태 너, 말 똑바로 해라! 바퀴벌레 한 마리가 아니라 세 마리였어. 그리고 바퀴벌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네가 놀려서 운 거지."

나는 이렇게 외치며 성태 손을 뿌리치고 당당하게 자리를 뜨고 싶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만일 도망치기라도 한다면 성태는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겁쟁이라고 놀릴 게 뻔했다. 결국 나는 생쥐처럼 꼼짝도 못한 채 숨도 작게 내쉬었다. 성태는 쥐 주위를 빙빙 돌더니 무릎을 구부리고 앉았다.

"너희도 앉아. 겁쟁이처럼 서 있지들 말고."

성태 말이 떨어지자 창희가 먼저 앉았다. 나도 막 무릎을 구부리는데

"난 갈래."

현우는 금방이라도 갈 것처럼 당당하게 말했다. 어느새 내 무릎이 쫙 펴졌다. 현우가 가면 나도 용기가 생길 것만 같았다.

"너도 지민이처럼 겁쟁이냐! 가기만 해봐. 네 책가방에 이 쥐를 넣어둘 테니까."

성태가 눈썹을 꿈틀거리며 현우를 잔뜩 째려보았다.

현우는 잠시 생각하는 얼굴이었다가 조용히 무릎을 구부리고 앉았다.

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현우랑 창희 사이에 앉았다.

"얘들아, 학교 안 가고 뭐하니? 쥐, 쥐잖아! 이이 징그러워라."

운동복 입은 아줌마가 뒷걸음치며 소리쳤다. 자세히 보니 김밥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였다. 순간 내 엉덩이가 들썩였다. 이쯤 되면 성태도 쥐를 포기하고 일어날 것만 같았다.

"쥐가 뭐가 무서워요! 작고 힘도 없는데요. 그리고 이건 죽은 쥐예요."

성태는 목에 잔뜩 힘주어 말했다. 그러자 들썩이던 내 엉덩이가 다시 얼어붙었다. 성태는 우리를 한번 휘 둘러보더니 보란 듯이 손가락 한 개를 폈다.

"잘 봐라."

성태는 손가락으로 쥐를 콕콕 두 번이나 찔러댔다. 나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너희 봤지? 나 쥐 만진 거. 창희 너도 해봐."

성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소리쳤다. 창희가 머뭇거리는 동안 불현듯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열 손가락이 저절로 오그라들어 주먹을 꽉 쥐었다.

창희가 검지를 폈다. 손가락이 쥐를 향해 다가가는 걸 보고 나는 그만 눈을 꽉 감아버렸다.

"너희 뭐해? 무슨 구경났냐?"

머리 위에서 누군가 외쳐서 내 눈이 번쩍 뜨였다. 처음 보는 누나였는데 중학생쯤 되어 보였다. 누나는 쥐를 보고도 운동복 입은 아줌마처럼 놀라지도 않았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나랑 현우 사이에 앉았다.

"너희, 쥐 만졌니?"

누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니요. 만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성태가 못마땅한 얼굴로 물었다.

"죽은 쥐를 만지면 생쥐 영혼이 나타나 복수한대."

"안 만진 사람한테도요?"

내가 묻자 성태가 나를 보며 눈을 흘겼다.

"안 만졌어도 여기에 있었잖아."

누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럼 누나랑 아까 그 아줌마한테도 복수하겠네요?"

성태는 실실 웃으며 물었다.

"난 너희처럼 여기에 오래 머무르지는 않을 거니까 괜찮아."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성태는 눈썹을 꿈틀거리며 누나를 째려보았다.

"그런 말은 네가 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넌 생쥐도 만졌잖아. 손가락으로 콕콕 찍었잖아!"

누나는 검지를 세워 까닥거렸다. 성태 입이 딱 벌어졌다.

"생쥐의 영혼이 우리를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넌 공포영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당연하지."

누나 목소리가 왠지 부드럽게 들렸다.

"지민이는 겁쟁이인데 공포영화를 왜 봐요."

성태가 키득키득 웃었다.

"그래? 그럼 넌 용감하니?"

"그럼요. 우리 반 아니 우리 학교에서 나처럼 용감한 아이는 없는 걸요. 지민이는 그 반대고요."

"누가 정말 용감한지 그건 두고 보면 알겠지. 곧 생쥐 영혼의 복수가 시작될 거야.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모험 같기도 하고 도전 같기도 해."

누나는 말을 마치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검정 봉투였는데 우리에게 한 개씩 나눠주었다. 나는 얼떨떨한 채 봉투 한 개를 받았다. 가까이에서 보니 검정이 아니라 짙은 잿빛이었다. 봉투를 열자 안에 종이가 있었는데 봉투랑 같은 색이었다.

"이게 복수랑 무슨 상관있어요. 난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생쥐 영혼이 복수하면 나는 주먹으로 팍팍 때려눕힐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용감하고 끈질긴지 넌 알지?"

성태가 나를 향해 검지를 폈다. 조금 전에 생쥐를 찔렀던 그 손가락이었다. 그래서인지 손가락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았다. 금방이라도 내 얼굴을 콕콕 찌를 것만 같았다.

"그럼 난 이만 간다."

누나는 조용히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가버렸다.

성태가 눈썹을 꿈틀거리며 일어나서 나도 일어났다.

"지민이 너, 아까 왜 대답 안 했어! 이 자식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단단한 주먹이 날아와 내 어깨를 쳤다. 어깨가 뻐근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다. 아프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억울했다. 창희는 내 눈을 피하고 현우는 성태를 노려보았다.

"내가 뭘 어쨌다고 때려! 때리면 다야!"

나는 성태를 향해 힘껏 소리쳤다 그러고 나서 학교를 향해 뛰었다.

어깨는 뻐근했지만, 속이 다 뻥 뚫렸다. 내가 소리쳤을 때 성태 눈이 커지고 몸은 움찔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문을 벗어나자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렸다.

운동화를 벗고 내 방으로 들어가서 차오르는 숨을 내쉬었다.

다음으로 가방에서 짙은 잿빛 봉투를 꺼냈다. 당연히 봉투 안에서 종이도 꺼냈다. 종이는 편지지처럼 두 번 접혀 있었다.

글자를 쓰기에는 좀 어두웠다. 종이에 줄도 없었다. 손끝으로 문질러보니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게 신기했다.

"어어?"

자세히 보니 종이 위에 가늘고 작은 털 한 개가 달라붙어 있었다. 내 속눈썹 같아 보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후~ 하고 불었다. 털은 아주 천천히 가볍게 날아올랐다. 금빛으로 반짝이며 춤추듯이 날다가 내 머리 위로 사라졌다.

나는 재빠르게 벽 거울 앞에 섰다.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헤치려다 멈췄다. 금빛 털은 내 이마에 붙어 있었다. 서너 번 반짝이더니 이내 사라졌다. 드디어 생쥐 영혼의 복수가 시작되었다고 내게 신호를 보낸 걸까. 갑자기 내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것만 같았다.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모험 같기도 하고 도전 같기도 해."

문득 누나 얼굴이 떠올랐다. 그동안은 용기라는 말은 어쩐지 나랑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생쥐 영혼이 복수할 테니까.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리라!

1교시가 끝났다. 나는 숨을 크게 한 번 내쉬고는 현우에게 다가갔다. 그동안은 단 한 번도 내가 먼저 말 걸어 본 적 없었다.

"현우야,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 갈래? 같이 놀자."

나는 용기를 내어 작지만, 또박또박 말했다.

김리라 장편동화 『무에타이 할아버지와 태권 손자』로 제4회 웅진주니어 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 시작. 그동안 쓴 책으로 『우리는 걱정 친구야』 『공부 잘하게 해 주는 빵』 『소희가 온다!』 『로봇 형 로봇 동생』 등이 있음.

‘신축’성 있는 코로나 시대

권용욱

‘부산작가회의’, 등록 이름은 ‘(사)한국작가회의 부산지회’입니다. ‘회의(會議)’란 ‘여럿이 모여 어떤 사항을 의논’하거나 그러한 ‘기관’을 말하는 것인데, 지난 2020년은 이미 보통명사가 되어버린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여럿이 함께 모여 행사를 이루는 기회가 적어 작가회의 사무처 활동에 다소 ‘회의’가 듭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동시대 우리들에겐 아주 난감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TV 화면으로 보니 어느 나라에선 몽둥이로 길거리 나다니는 사람들을 패기도 하더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공포가 필요악의 폭력(!)을 낳는 희한한 판국입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올 신축년에도 계속될 조짐이 보입니다. 이제는 여럿이 모이는 풍경도 바꿔야겠지요. 새로운 시대 풍습에 아직 익숙하지 못해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부닥쳐 덤벼들면 안 될 일도 아닐 것입니다.

1996년 ‘부산민족문학작가회의’라는 명칭으로 창립한 ‘부산작가회의’는 지역 문학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문학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 『5·7문학』(1985), 무크지 『토박이』(1986), 『문학과실천』(1987), 『문학과현실』(1988), 『작가사회』(1997) 등을 이어받아 현재 계간지 『작가와사회』가 2020년 겨울호 통권 81호를 발간하면서 지역 문학인들의 활동 광장을 크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시대에 상응하는 각종 문학세미나, 포럼, 작고 문인 재조명 콘서트, 청소년과 시민 문화강좌, 선배 작가와의 만남 등 매우 다양한 모임들을 개최하여 문학인들의 사회 공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고요. 또한 1998년 제1회 ‘요산 김정한 문학제’를 시작으로 2020년 제23회 ‘요산문학제’를 주최하면서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대회(백일장, 인증샷 대회, 소설낭독 대회 등)를 마련하고, 문학기행, 심포지엄, 시화전, 창작지원금 수여 등 항상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거의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부터 시작한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톡!톡!’ 행사도 벌써 81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은 우리의 현대사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촛불이 타오르던 시기였습니다. ‘부산작가회의’도 그 거대한 촛불 행렬과 늘 함께하였지요.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화 및 정부의 사과 촉구 기자회견, 부산 위안부 역사관 건립 2차 부산선언 참가,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를 위한 ‘천개의 의자’ 참가, 부산국제영화제 대책위 참석, 동해남부선 민간상업개발 진행 반대 문화제 주최, 세월호 추모문화제 참가,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식 참가, 평통사 평화홀씨전 시화전 기획, 사할린 동포 사진전 참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 부산에서 만나다〉 행사 마련, 부울경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행동 참가, 소성리 사드 반대 문화제 참가……. 이루 다 언급할 수 없는 행사들로 당시의 사무국 회원들이 그야말로 ‘새가 만 발이 빠지는’ 활동을 거듭했더랬습니다.

문학콘서트 故 이복구 소설가를 기리며(부산 남포문고)

이러한 지역사회활동들이 올해 들어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전국작가대회도 그러했지만 대부분 행사들을 거의 비대면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부산작가회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지 못한 채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 처지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2001년에 제정되어 올해 스무 번째를 맞이한 ‘부산작가상’ 시상식도 어쩔 수 없이 수상자들만 모시고 아주 간략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청년문학위원회에서 이끌어가고 있는 ‘젊은시선’ 문학교실도 거의 소수의 참석자들로 명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내실 있어 좋을 수도 있지만 문학이 ‘우리들끼리’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과거 ‘부산작가회의’ 회원들에게 매달 전달되던 소식지를 웹자보 형식의 ‘NewsLetter’로 다시 복간하여 그간의 활동 내용이나 진행 상황들을 분기별로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시분과위원회 ‘시움’ 걷기대회와 시낭송회(해운대 미포~청사포 해변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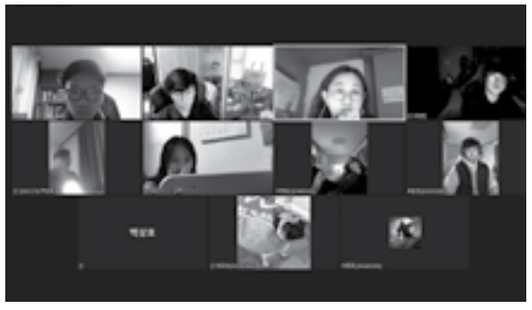
이사 워크숍(경남 창녕 문심원)

이런 와중에도 2020년 회장단의 결의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과의 연대를 주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광주전남작가회의’ 그리고 ‘경남작가회의’와 함께 ‘제1회 부마항쟁문화축전’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비록 관객 없는 유튜브 생중계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지만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의 열띤 분위기가 뒤풀이 장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 사화집을 발간하였고, 제1회 부마민주문학상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경남작가회의’와 함께 제정하여 마산 오동동 문화공원에서 시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세월 속에 사라져가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되살리는 데 앞장서는 부산작가가회의가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만, 내년에도 올해처럼 주변의 여러 단체들이 기존의 연례행사조차 주저하거나 취소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이 또한 뜻대로 이룰 수 없을까 매우 염려됩니다.

신축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작가회의’라는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각종 문학 활동을 열심히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사회의 진보와 민주 발전을 위한 여러 단체와 연대하고 함께 활동하는 그야말로 행동하는 문학단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과거처럼 ‘여럿이 모여’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없게 될지는 모르지만, 비대면시대라도 회원들과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시대가 주는 굴레에 눌려 움츠리는 단체가 되지 않아야겠지요. 그 길이 솔직히 좀 어렴풋하여 아직 더듬어 기어가는 수준이지만 기죽지 말고 일어서 성큼성큼 앞장서는 단체가 되어야겠지요. 아무렴요, 부산의 문학단체라면 단연 ‘부산작가회의’니까요.

제1회 부마민주문학상 시상식(마산 창동 오동동 문화공원)

제23회 요산문학축전 개막식(요산문학관)



청년문학위원회 ‘젊은시선’들의 새로운 모임 풍경

권용욱 2014년 『시애』 수필 등단, 2016년 『포엠포엠』 시 등단. 〈시작나무〉 동인, 부산 경원고 교사, 현 부산작가회의 사무처장.

본회

[새책]

시집
강수경 『어제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문학의전당), 강신애 『어떤 사람이 물가에 집을 지을까』(문학동네), 강은교 『아직도 못 만져본 슬픔이 있다』(창비), 고경자 『사랑의 또 다른 이름』(시산맥사), 곽구영 『그러나 아무 일 없이 평온한』(문학의전당), 김광렬 『존재의 집』(천년의시작), 김륭 『애인에게 줬다가 뺏은 시』(달을쏘다), 김삼환 『그대의 낯선 언어를 물고 오는 비둘기 떼』(시산맥사), 김선향 『F등급 영화』(삶창), 김영미 『기린처럼 걷는 저녁』(걷는사람), 김자현 『엿장수, 엔니오 모리꼬네』(시산맥사), 김재근 『문사동 가는 길』(인문엠앤비), 김재석 『영천』(사의재), 김점용 『나 혼자 남아 먼 사랑을 하였네』(걷는사람), 김태형 『네 눈물은 신의 발등 위에 떨어질 거야』(문학수첩), 맹문재 『사북 골목에서』(푸른사상), 박권수 『적당하다는 말 그만큼의 거리』(북인), 박선욱 『눈물의 깊이』(삼인), 박성민 『어쩌자고 그대는 먼 곳에 떠 있는가』(시인동네), 박우담 『계절의 문양』(황금알), 서홍관 『우산이 없어도 좋았다』(창비), 손남숙 『새는 왜 내 입안에 집을 짓는 걸까』(걷는사람), 안태운 『산책하는 사람에게』(문학과지성사), 우동식 『겨울, 은행나무의 발묵법』(애지), 원종태 『멸종위기종』(푸른사상), 유귀자 『곡비』(고요아침), 이궁로 『어둠은 밤의 너머에서 뜬다』(한국문연), 이선식 『귀를 씻다』(시인수첩), 이성미 『다른 시간, 다른 배열』(문학과지성사), 이오우 『바람의 경지』(천년의시작), 이윤 『혜윰 가는 길』(시산맥), 이정록 『아직 오지 않은 나에게』(사계절), 이지담 『너에게 잠을 부어주다』(서정시학), 이철경 『한정판 인생』(실천문학사), 이효복 『나를 다 가져오지 못했다』(문학들), 임효림 『어느 정도 나이 들어 저승길도 보이고』(시와에세이), 정공량 『희망』(시선사), 정용국 『동두천 아카펠라』(지우북스), 정운희 『왜 네가 아니면 전부가 아닌지』(푸른사상), 정춘근 『지뢰꽃 마을 대마리』(실천문학사), 조명 『내 몸을 입으시겠어요?』(민음사), 조성순 『왼손을 위하여』(천년의시작), 조용숙 『어디서 어디까지를 나라고 할까』(북인), 차영호 『목성에서 말타기』(움), 천수호 『수건은 젖고 댄서는 마른다』(문학동네), 피재현 『원더우먼 윤채선』(걷는사람), 홍경희 『봄날이 어랑어랑 오기는 하나요』(걷는사람)

소설집
김혜정 『모나크 나비』(바람의아이들), 서유미 『우리가 잃어버린 것』(현대문학), 유용주 『죽음에 대하여』(도서출판b), 이종숙 『아 유 레디?』(얘기꾼), 이현수 『우리가 진심으로 엮일 때』(문학동네), 최윤 『동행』(문학과지성사)

장편소설
권여선 『토우의 집』(자음과모음), 김선재 『노라와 모라』(다산책방), 김혜정 『라온의 아이들』(서해문집), 소쿠리씨(서정원) 『북방의 하늘』(북랩), 이시백 『용은 없다』(삶창), 정여랑 『5년 후』(위키드위키), 조혁신 『장미와 플라톤』(미디어밥)

기타
김영 이야기책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도토리숲), 남기택 평론집 『제도 너머의 문학』(북스힐), 이시백·임진택 소리소설 『이야기와 소리로 만나는 전태일』(도서출판b), 전기철 시론집 『숨의 언어』(푸른생각), 황선열 평론집 『아동문학의 근원』(신생)

[경조사]
남정현 소설가 작고, 정수남 소설가 자녀상, 천승세 소설가 작고

[수상]
· 함민복 시인 제3회 권태응 문학상 수상
· 한상순 동시인 제14회 서덕출 문학상 수상

강원작가회의

[새책]
김도연 산문집 『패엽경』(북인), 김고니 동시집 『완이의 잠꼬대』(고래책빵), 이윤길 해양장편소설 『남극해』(신생), 최삼경 산문집 『그림에 붙잡힌 사람들』(달아실), 신은숙 시집 『모란이 가면 작약이 온다』(파란), 최승랑 소설집 『추억의 습관』(실천문학사), 하창수 번역집 『명상의 기쁨』(제프 포스터, 굿모닝미디어)

경기광주작가회의

[새책]
구중서 시조시집 『인사동 게바라』(천년의시작), 허정분 시집 『아기별과 할미꽃』(학이사), 윤일균 시집 『돌모루 구렁이가 우는 날에는』(도서출판b), 정윤옥 시집 『배꼽 인문학』(예옥), 최영옥 시집 『새벽달에 쓴 연서』(예옥), 최언진 시조집 『아버지의 유산』(시조문학사)

[경조사]
정윤옥 시인 부친상 시모상, 박경분 시인 시모상, 최영옥 시인 시모상, 이수현 시인 모친상, 장건 시인 자녀 결혼, 박경분 시인 자녀 결혼

[수상]
· 구중서 평론가 구상문학상 특별상 수상

[행사]
· 경기광주작가회의 너른고을문학회 하계수련회
· 진천규 통일TV 초청 강연회 〈남북한 평화통일을 향한 북한 바로알기〉
· 평화의 소녀상 건립

[소식]
· 장건 시인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취임
· 백영기 시인 광주시 문화재단 이사 취임

고양작가회의

[새책]
고양작가회의 『작가연대 15호』(들꽃)

[경조사]
정수남 소설가 자녀상(소설가 정상훈)

광주전남작가회의

[새책]
전동진 시론집 『포에톨로지-서정시의 위상학』(문학들), 장정희 장편소설 『옥봉』(강), 고재종 시에세이집 『시간의 말』(문학들), 김미승 동화 『아깽이를 부탁해』(마음이음), 박미경 시집 『이따금 푸른 기별』(詩와에세이), 김경희 장편소설 『오래된 정원에 꽃이 피네』(문학들)

[수상]
· 김영진 시인 공무원 노동문학상 수상(시, '철근인생') 상금 50만 원은 사랑의 열매 재단에 전액 기부
· 박관서 시인 2020 〈시와문화〉 작품상 수상(시, '약산의 나라')

[소식]
· 11월 27일: 제20-3차 이사회 개최. 차기 제15대 회장 선출 등을 위한 2020년 총회준비위원회 구성(위원장에 광주전남작가회의 직전 회장 박관서 시인). 차기 회장 입후보 공고.
· 12월 10일: 기관지 광주전남 〈작가〉 27호 발간. 특집에서 심영의 임동확 김강원 교수가 '코비드(COVID-19) 이후의 삶과 문학' 주제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특별기고에서는 박몽구 시인이 '시인의 힘으로 이룩한 해방구의 꿈', 이승철 시인이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바이칼 여행' 원고로 지면을 알차게 해주었음. 이밖에도 〈작가〉 신인상 수상작과 심사평 당선소감, 회원들의 시, 소설, 동화, 희곡, 서평 등으로 다채롭게 편집.
· 12월 19일: 2020년 광주전남 〈작가〉 신인상 시상식. 전일빌딩245 중회의실. 시 부문 김봉철 이미루 한경훈 시인. 단편소설 부문 공미숙 소설가. 기념패 수여 및 전각 증정. 회원과 수상자 지인 20여 명이 참석하여 김준태 광주평화포럼 이사장, 채희윤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축사 등의 순서로 문단에 나온 신인 작가들을 축하하고 격려.
· 12월 19일: 박현우 시인 2시집 『달이 따라오더니 내 등을 두드리곤 했다』 출판기념회. 화순 첫눈 카페. 시낭송 및 축하 시노래 공연 등.
· 12월 19일 ~ 1월 31일: 이효복·박현우 부부 시인의 시와 그림전. 화순 첫눈 카페
· 1월 23일: 2020년도 정기총회(예정). 2020년도 사업/정산보고 및 차기 제15대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선출 등

대구경북작가회의

[새책]
이해리 시집 『수성못』(학이사), 박덕희 동시집 『호랑이는 풀을 안좋아해』(브로콜리숲), 윤석홍 시집 『북위 36도, 포항』(도서출판 나루), 권서각 산문집 『대장장이 성자』(푸른사상), 이하석 산문집 『코 메인 경주 남산』(한티재)

[수상]
· 김용락 시인 제12회 시작문학상 수상
· 이해리 시인 2020년 대구문학상 수상
· 전인식 시인 제5회 불교문예작가상 수상
· 박승민 시인 제5회 작가정신문학상 수상

대전작가회의

[새책]
김규성 시집 『뜻밖이다』(한솔), 신영연 시집 『바위눈』(시와정신)

[수상]
· 황수대 평론가 제9회 이재철아동문학평론상 수상
· 김나무 극작가 제18회 대전충남세종 퍼블릭액서스 시민영상제 대상

[행사]
12월 5일: 2020 제3회 정기이사회(단톡방 진행)

부산작가회의

[새책]
『작가와사회』 81호(겨울호)

[경조사]
성병오 소설가 작고

[수상]
· 김요아킴 시인 백신애 창작지원금 수혜
· 김참 시인 지리산문학상 수상
· 류정희 시인 제28회 부산시인협회상 수상
· 권유리야 평론가 동북아시아문화학회상 수상

[행사]
· 10월 15일: 부마항쟁 문화축전 기념 세미나 〈다시, 10월에 서서〉(부산 남포문고 문화홀 '冊138')
· 10월 18일: 제1회 '부마민주문학상' 시상식(마산 오동동 공원)
· 10월 24일: 제23회 요산문학축전
· 10월 28일: 요산문학축전 문학콘서트 『식물의 시간』 故 이복구 소설가를 기리며
· 10월 31일: 요산심포지엄 〈김정한 소설의 정치/경제민주주의와 창비〉, 창작지원금 시상식(수혜자: 정연홍 시인, 양정규 소설가), 청년문학위원회 '젊은 시선' 문학특강(작가회의 사무실)
· 11월 4일: 제4분기 이사회
· 11월 6일~7일: 부산도서관 북콘서트
· 11월 9일: 부산작가회의 시분과·무크지시움 2020 가을 시화전 〈코로나 시대의 절망, 사랑 그리고 시〉
· 11월 14일: 시분과·무크지시움 공동 2020 가을 걷기대회 및 시낭송회
· 11월 18일: 제79회 문학톡!톡!(소설)
· 11월 21일: 청년문학위원회 '젊은 시선' 문학특강(작가회의 사무실)
· 12월 2일: 제80회 문학톡!톡!(시)
· 12월 10일: 2020년 부산작가회의 '부산작가상' 시상식(시부문 - 채수옥 『오렌지는 슬픔이 아니고』, 소설부문 - 이미욱 『밤이 아닌 산책』, 평론부문 - 하상일 『뒤를 돌아보는 시선』)
· 12월 31일: 부산작가회의 단체 아카이빙과 청년문학위원회 역량강화 사업 결과물 제출
· 12월 26일: 청년문학위원회 '젊은 시선' 문학특강(작가회의 사무실)
· 12월 16일: 제81회 문학톡!톡!(소설)
· 12월 19일: 청년문학위원회 '젊은 시선' 문학특강(작가회의 사무실)

부천작가회의

[새책]
조용수 시집 『관성의 법칙』(시산맥), 임은주 시집 『사라진 포도원』(한국문연), 강수정 시집 『어제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문학의 전당), 부천지부 분과별 연간집 발간 제34집 『부천문단』, 제21집 『부천작가』, 제15집 『부천시인』, 제16집 『부천수필』

[수상]
· 구정혜 시인 제30회 복사골문학상 수상
· 한성희 수필가 제2회 올해의 부천작가상 수상
· 이재학 시인 부천예술가상 수상

[행사]
· 11월 5일: 제30회 복사골 문학상 수상자 발표, 제2회 올해의 부천작가상 수상자 발표
· 12월 12일: 2021년 총회 및 송년회 연기(제30회 복사골 문학상, 제2회 올해의 부천작가상 시상식)
· 2021년 1월: 정기 총회(회장 및 임원 선출)

여수작가회의

[새책]
우동식 시집 『겨울, 은행나무의 발묵법』(애지)

[소식]
· 하병연 시집 『길 위의 핏줄들』(애지) 문학 나눔 선정
· 11월~12월: 여수시립쌍봉도서관 청려문향 시화전시 25점 4차 전시 (12월까지)
· 12월: 2020년 총회 코로나로 1월로 연기

인천작가회의

[새책]
인천작가회의 시선집 『그리하여 다시』(글소리), 소설선집 『쉐보레 자동차에 관한 추억』(글소리), 심명수 시집 『쇠유리새 구름을 요리하다』(상상인), 정세훈 동화집 『훈이와 아기제비들』(푸른사상), 홍명진 산문집 『엄마가 먹었던 음식을 내가 먹네』(걷는사람)

[수상]
· 정세훈 시인 충청남도 올해의 예술인상(문학 분야)
· 조정인 시인 제9회 문학동네 동시문학상

[경조사]
문계봉 시인 모친상

[행사]
· 10월 30일~: 2020 한국근대문학관 기획전시 〈인천문학기행〉(계간 『작가들』 전시)
· 11월 6일: 2020 인천지역 노동문화제(조혁신 소설가가 전태일 일기 발췌 낭독, 이병국 시인과 김림 시인이 전태일 관련 시 낭송, 손병걸 시인(지회장)과 조혜영 시인이 노래 공연)
· 11월 21일: 11월 이사회(온라인으로 개최)
· 12월 9일: 사법 적폐 개혁 촉구 인천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12월 15일: 계간 『작가들』 75호(2020년 겨울호) 발간
· 12월 17일: 본회 주최 검찰개혁 촉구 작가 연명에 동참
· 12월 29일: 검찰과 사법개혁 촉구 인천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1월 9일: 2021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처 회의

제주작가회의

[새책]
제주작가회의 『제주작가』 71호(심지), 『작가가 만난 4.3사람들② 봄은 가도 봄은 오네』(한그루), 알베르 카뮈 지음·김진하 옮김 『이방인』(을유문화사), 김섭 시집 『혼디지킬락』(각), 김란 그림책 『파랑별에 간 제주 해녀』(한그루), 양순진 동화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더 신비한 제주 설화』(책과나무)

[경조사]
서안나 시인 부친상

[수상]
· 김진철 작가 내일의 한국작가상 수상

[행사]
· 12월 20일~30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4·3 시화전(제주시청 버스정 류장)
· 2020 『제주작가』 신인상 강정태 씨 수상(소설부문)
·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계 프로그램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기행' 개최(11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 12월 6일: 4.3문학기행(산란이 오름)
· 제2공항 반대 벽시 행동 및 제2공항 반대 제주문화예술인 선언 서명운동

충남작가회의

[새책]
충남지회 기관지 『작가마루』 32호, 강병철 소설 복간 『닭니』(작은숲), 김영서 시집 『우리는 새로 만난 사이가 되었다』(삶창), 김홍정 연작소설 『호서극장』(솔출판사), 박명순 산문집 『안녕, 개떡선생』(삶창), 박미라 시집 『울음을 불러내어 밤새 놀았다』(북인), 서현진 시집 『작은 새를 위하여』(천년의시작), 전해윤 시집 『염치,없다』(천년의시작), 정용기 시집 『어쨌거나 다음 생에는』(천년의시작), 조재도 시집 『좋으니까 그런다』(천년의시작), 주선미 시집 『통증의 발원』(시와문화사), 하재일 시집 『달마의 눈꺼풀』(파란)

[경조사]
류지남 시인 작고

[수상]
· 정완희 시집 『붉은 수숫대』 충남시인협회상 작품상 수상
· 김홍정 소설가 제1회 충청남도 예술인상 대상 수상

[행사]
· 2020 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줌' 프로그램 화상 회의를 오프라인과 병행하여 실시함)

충북작가회의

[새책]
장문석 시집 『천마를 찾아서』(실천문학), 윤정용 평론집 『조금 삐딱한 책읽기』(고두미), 오명희 소설집 『마지막 수업』(아시안허브), 노은희 소설집 『다시 100병동에서』(푸른사상), 김경진 동시집 『별의 별』(문학동네)

[소식]
이수현 작가 동양일보 신인문학상 수필 「까마귀」 당선

[행사]
· 시민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 및 무심천 시 토크
· 충북작가 북 콘서트(노은희, 조우연, 우부순, 심진규)

화성작가회의

[새책]
화성작가회의 기관지 『화성작가』 창간호(회원 20명의 시·시조·소설·동화·비평 수록), 윤백경 시집 『이따금 푸른 기별』(시와에세이)

[경조사]
이덕규 시인 모친상

[행사]
· 9월~11월까지 화성시립도서관과 함께 진행한 '1인 1책 쓰기' 비대면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완료. 단편동화, 자서전 분야 창작 멘토로 회원 7명이 참여했으며, 멘티들의 작품을 모아 도서관에서 책 출간.
· 코로나19로 11월, 12월 정기모임을 열지 못함
· 신입회원 김연화(시), 김영주(시조) 입회

[부산작가회의]
· 2월 17일: 제26차 정기총회 예정

[부천작가회의]
· 2월: 임원회의(신임회장 및 임원 조직 개편) 예정

한국작가회의 홈페이지(http://www.hanjak.or.kr) 내 '회원마당' - '회원 새책'으로 가시면 출간하신 서적을 직접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사 무 처 소 식

11월

2일 작은서점 지원사업 천안 홍보영상 촬영

4일 경의선 책거리 책학교 그림책학교 1기 진행

5일 평론분과 좌담 안내 메일링

6일 평론분과 좌담 〈오토픽션, 자전소설, 사소설〉 진행

9일 합동시상식 개최 안내 메일링

11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작가행동 서명 안내 메일링
사무처 편지 메일링

12일 전태일 50주기 기념동판 조성사업 안내 메일링

14일 한국작가회의 합동 시상식 개최(아름다운 작가상, 내일의 한국작가상, 내일을여는작가 신인상)
경의선 책거리 2020 올해의 작가전 II - 젊은 작가 33인 전시

17일 전태일 50주기 기념 낭독회 〈일요일은 쉬게 해줘〉 관람 신청 메일링

19일 〈국립한국문학관 자료구축 성과발표 및 학술심포지엄〉 안내 메일링

20일 전태일 50주기 기념 낭독회 〈일요일은 쉬게 해줘〉 개최

21일 경의선 책거리 책학교 그림책학교 전시 워크숍

23일 동인문학상 폐지 촉구 작가행동 안내 메일링

24일 작은서점 지원사업 방구석 랜선책방 콘서트 홍보 메일링

30일 회보 128호 발행

12월

3일 김용균을 추모하는 문화행동 안내 메일링

4일 경의선 책거리 그림책학교 1기 전시 [삶, 이어지는 일상展]

6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에 대한 온라인 서면 공청회 안내 메일링

10일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 / 온라인 권익 보호 교육 안내 메일링

12일 한국작가회의 시낭송회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라!〉 개최

21일 문체부 〈국립한국문학관 전시기본계획 수립 및 콘텐츠 개발 연구〉 설문 메일링

22일 〈경의선 책거리 겨울 빛 축제 : 빛의 숲을 거닐다〉 개최

31일 경의선 책거리 기획전시 책방에 대하여: About MAPO BOOK#SHOP 개최

1월

31일 회보 129호 발행

2월

6일 2021년 2월 이사회 개최

25일 『내일을여는작가』 78호 발행

27일 제34차 정기총회 개최

후 원 및 특 별 회 비 납 부 현 황

특별회비

사)한국농협	100,000
강무홍	500,000
구중서	300,000
김건영	100,000
김대현	100,000
김명기	100,000
김사이	100,000
김은경	100,000
김장근	100,000
김종연	100,000
김태선	100,000
김혜진	100,000
박상률	400,000
박승민	100,000
서성란	100,000
신현수	600,000
안주철	450,000
안지은	100,000
안현미	400,000
양순모	100,000
양연주	200,000
오미옥	100,000
원종국	100,000
유현아	200,000
이대흠	100,000
이도윤	500,000
이상호	100,000
임성용(소설)	100,000
정란희	150,000
정미영	450,000
정우영	400,000
조윤진	100,000
주영국	100,000
천수호	150,000
최상해	100,000
최지인	100,000
하명희	500,000
한창훈	200,000
함순례	150,000
황규관	1,000,000

※ 입금자명을 '사)한국농협'으로 기재한 분을 찾습니다.

연간시집후원금

강민영	30,000
강순	10,000
권현형	100,000
김수우	50,000
김영언	10,000
이철경	30,000
주영국	10,000

광고후원금

재단법인광명문화재단	1,000,000
목선재	330,000
노작홍사용문학관	1,000,000
바노바기성형외과	550,000
걷는사람	1,330,000

CMS 납부를 비롯하여 회비를 입금해 주신 회원님들과 특별회비 및 후원 광고 등으로 정성을 모아 준 모든 분들께 큰절 올립니다. 회비와 관련하여 성함이 빠졌을 경우 사무처로 연락해 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02-313-1486~7)

* CMS 납부 신청 : 홈페이지 상단 ◉CMS 납부 신청
* 일반회비 납부 계좌 : 우리은행 845-05-000551 / 예금주 (사)한국작가회의
* 특별회비 납부 계좌 : 우리은행 1005-802-113278 / 예금주 (사)한국작가회의

2020년 11~12월 회비 납부 현황

가백현 강경아 강경희 강규(강태규) 강기원 강기희 강남률 강덕환 강동수 강동우 강무홍 강미정 강민경 강민구 강민숙 강병철 강봉수 강성남 강성애 강성원 강세환 강수경 강수완 강순 강시현 강애나 강영 강영주 강영환 강유정 강윤미 강윤화 강은미 강정이 강종원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강호정 고경숙 고경자 고광률 고광식 고명섭 고명재 고명철 고산돌 고성만 고영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우란 고우진 고운기 고원 고은규 고은진주 고인환 고증식

고찬규 고창근 고철 고희림 공광규 공정배 곽옥미 곽재구 곽형덕 구자명 구중서 권경아 권근화 권기선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성우 권성은 권순 권순긍 권순자 권순진 권영임 권오영 권오훈 권위상 권정수 권정현 권지영 권지예 권지현 권진희 권태주 권혁소 권혁재 권현형 권희돈 금미자 길상호 김건영 김건홍 김경 김경순 김경식 김경윤(소설) 김경윤(시) 김경인 김경후 김경희 김광렬 김광선 김광원 김광철 김규중 김균탁 김근희 김금래

김기택 김길녀 김나무 김나정 김남권 김남규 김남극 김남길 김남숙 김남영 김남일 김대술 김대현 김덕우 김동승 김동연 김동윤 김동진 김동철 김동현 김동환 김두녀 김두례 김두안 김란 김륭 김리라 김리하 김림 김명 김명기 김명남 김명신 김명우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명환(평론) 김명환(시) 김문 김미령 김미승 김미월 김미정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숙 김민정(파주) 김민정(부산) 김민주 김민형 김민호 김민휴 김바다(시) 김바다(어청) 김백겸 김병용 김병택 김보람 김보영

김보일 김봄 김사람 김사이 김산아 김삼환 김상우 김상출 김상혁 김상현 김서령 김서정 김석영 김선 김선영 김선재 김선주 김선향 김섬 김성규 김성수 김성숙 김성우 김성장 김세인 김소현 김솔 김송포 김수목 김수복 김수열 김수영 김수온 김수우 김숙경 김순남 김순선(세종) 김순선(제주) 김승환 김승희 김시언 김신숙 김신우 김안 김양호 김양희 김어영 김연미 김연수 김연종 김연희 김영 김영곤 김영권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삼 김영숙 김영언

김영욱 김영주(소설) 김영주(시조) 김영찬 김영춘 김옥진 김완 김완하 김왕노 김요섭 김요아킴 김용락 김용만 김용매 김용택 김우남 김우출 김유미 김유진 김유철(소설) 김유철(시) 김윤곤 김윤배 김윤태 김윤현 김윤화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옥 김은의 김은주 김은중 김은지 김응 김응교 김이강 김이녘 김이은 김이정 김인숙 김일연 김일영 김일하 김자연 김자현 김자흔 김재영 김재용 김재홍 김재환 김재훈 김저운 김점용 김정숙 김정신 김정애 김정연 김정원 김정주 김정진

김정호 김정환 김정희 김젬마 김종경 김종성 김종숙 김종연 김종원 김종인 김종훈(평론) 김종훈(시) 김주대 김주태 김준현 김중일 김지란 김지민 김지선 김지섭 김지윤 김지혜 김진 김진경 김진돈 김진문 김진수 김진숙 김진환 김진희 김창규 김창균 김창집 김창희 김채운 김청미 김추인 김춘리 김태경 김태선(소설) 김태선(평론) 김태철 김태형 김택희 김하경 김하돈 김학산 김학중 김해림 김해자 김향미 김현 김현곤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형경 김형로 김혜정 김호성 김홍성

김홍신 김홍주 김홍춘 김화숙 김황흠 김효숙 김효은 김희식 김희업 김희우 김희정(대전) 김희정(서울) 나기철 나민애 나병춘 나비연 나여경 나정욱 나해철 남기택 남상순 남송우 남승원 노은희 노인수 노지영 노현수 도순태 라윤영 류경희 류근 류명선 류미야 류성훈 류수연 류재만 류정환 류지남 류휘석 리산 마린 마선숙 마윤제 맹문재 문경민 문경수 문계봉 문동만 문무병 문선정 문신 문영숙 문재호 문정영 문창갑 문태준 문현미 민구 민왕기 박경분 박경장

박경희 박광배 박구경 박권수 박권숙 박규현 박근태 박금주 박기눙 박기섭 박남준 박남희 박노식 박덕규 박덕선 박도 박동억 박두규 박래여 박명규 박명순 박몽구 박미경 박민규 박민영 박병례 박병성 박상률 박상준 박생강 박석구 박석무 박석준 박설희 박성우 박성한 박세영 박세인 박소란 박소연 박소영 박소원 박송이 박수연 박수정 박순호 박승민 박시교 박시우 박신규 박연옥 박영민 박예분 박완섭 박운식 박월선 박윤영 박은주 박은중 박이정 박인

박인정 박인하 박인혜 박일구 박일환 박재연 박재웅 박정애 박정원 박정윤 박제영 박종관 박종국(시) 박종국(다원장르) 박종헌 박종희 박주하 박준 박지웅 박진형 박찬세 박철영 박탐유 박태주 박필헌 박한 박한라 박해석 박현주 박형권 박형준 박혜상 박혜선 박혜영 박혜지 박효명 박흥순 박희정 방남수 방현석 배교윤 배명희 배봉기 배선규 배선옥 배성호 배수연 배우식 배지영 백가흠 백건우 백낙청 백남이 백무산 백민석 백상웅 백애송 백은선 백은하 백정희 범현이

변현상 복효근 봉윤숙 부복정 부희령 사윤수 서광일 서동인 서성란 서수찬 서순희 서애숙 서영식 서영인 서영채 서재진 서정오 서정원(시) 서정원(소설) 서정택 서정홍 서정화 서지선 서진연 서현진 서홍관 서효인 석벽송 석연경 석형락 선석현 선안영 설하한 성군경 성동혁 성미영 성배순 성석제 성선경 성향숙 성희직 손남숙 손병걸 손순미 손승휘 손월빈 손정수 손정순 손지태 손진은 손택수 손홍규 송경동 송광근 송광룡 송명숙 송명원 송방순 송승언 송승태 송애경

송언 송염만 송은숙 송정섭 송주성 송진권 송태웅 송호필 신경림 신계우 신기훈 신남영 신단향 신덕룡 신상진 신성률 신수현 신승철 신언관 신연수 신연호 신운영 신윤서 신정민 신준영 신철규 신현수(어청) 신현수(시) 신현옥 신혜진 심영의 심윤경 심재방 안금자 안덕훈 안도현 안미선 안미옥 안상학 안성길 안성호 안영선 안영실 안오일 안은주 안이희옥 안익수 안재성 안종관 안종수 안주철 안지은 안태운 안학수 안현미 안효경 안희연 안희정 양곡 양기창 양문규

양상호 양소은 양순모 양안다 양애경 양연주 양영아 양용직 양원 양은숙 양재성 양정규 양지숙 양진기 양혜영 어향숙 엄경희 엄광용 엄미경 엄우흠 엄원태 여국현 여성민 염무웅 염민기 염창권 오광석 오도엽 오명선 오미경 오미옥 오민석 오봉옥 오선덕 오성인 오성일 오세혁 오수연 오승희 오시영 오연경 오영석 오유리 오인태 오종우 오주리 오진희 오창은 오춘옥 오태호 온형근 용현중 용환신 우대식 우덕상 우동식 우혁 우현옥 우형숙 원명희 원종국

원종찬 원종태 유강희 유경숙 유금오 유대형 유문선 유병록 유순 유순덕 유순예 유승도 유시연 유시춘 유영갑 유영곤 유영진 유용주 유은희 유종 유중원 유채림 유하정 유현아 유형수 육근상 윤경덕 윤관영 윤동수 윤동재 윤동희 윤병주 윤석위 윤석정 윤석홍 윤선길 윤성학 윤순례 윤영수 윤영전 윤영천 윤은성 윤인구 윤일균 윤재걸 윤중목 윤지관 윤지영 윤천수 윤해연 은승완 은이결 이가을 이강산 이경덕 이경란 이경림 이경석 이경수 이경자 이경재

이경호 이경희 이궁로 이권 이규배 이규원 이근배 이금란 이기순 이남순 이남희 이다빈 이대의 이대흠 이덕규 이도흠 이동식 이동욱 이리영 이만교 이면우 이명우 이명원 이명윤 이명인 이명행 이명희 이묘신 이문복 이문숙 이미경 이미숙(소설) 이미숙(시) 이민호 이범근 이병국 이병룡 이병률 이병일 이병철 이병초 이복현 이봉환 이삼례 이상국 이상락 이상번 이상섭 이상실 이상인 이상호 이서화 이석범 이선 이선균 이선식 이선희 이설야 이성주 이성진 이세경

이소암 이소연 이송우 이수진 이수풀 이숙현 이숙희 이승은 이승철 이승희 이시백 이시은 이안 이어진 이연희 이영광 이영숙 이영애 이영주 이영환 이영희 이오우 이옥근 이용석(시) 이용석(소설) 이용임 이용준 이용한 이용헌 이운진 이원규 이원오 이원익 이원준 이원화 이월춘 이위발 이윤 이윤경 이윤학 이은규 이은래 이은봉 이은선 이은주 이응인 이이후 이인범 이인성 이인호 이장근 이재복 이재연 이재웅 이재윤 이재은 이재훈 이정록 이정민 이정섭 이정연(소설)

이정연(시) 이정현 이정훈(시) 이정훈(평론) 이정희 이종민 이종수 이종숙 이종암 이종인 이종하 이종형 이주언 이주희 이준옥 이준희 이중도 이중현 이지 이지담 이지엽 이지호 이진수 이진욱 이진행 이진희 이찬 이창남 이춘길 이춘우 이태정 이태형 이하 이하율 이학영 이한열 이해선 이행자 이향안 이현수 이현식 이현정 이현호 이혜경 이호경 이호빈 이호석 이화경 이화영 이화우 이후경 이희섭 이희종 인은주 일곱째별 임경묵 임경섭 임규찬 임내영 임덕연 임동윤

임동확 임두고 임미리 임백령 임봄 임성구 임성용(소설) 임성용(시) 임수빈 임수현 임술랑 임승유 임승훈 임영봉 임영천 임윤 임재정 임정매 임정연 임정자 임종철 임철균 임철우 임헌영 임혜라 임현준 임홍배 임후남 임희구 장경식 장대송 장무령 장문석 장상관 장석남 장성욱 장세현 장수라 장시우 장영복 장영춘 장옥근 장용철 장우원 장유리 장유정 장은영 장이엽 장이지 장재원 장정환 장정희 장주식 장지혜 장진기 장진영 장철문 장현숙 전남용 전대환 전동균

전민식 전비담 전성태 전성호 전영관 전영규 전욱진 전인식 전점석 전지열 전진우 전해수 전호석 전홍준 정가일 정강철 정공량 정기석 정남영 정노윤 정대호 정덕재 정도원 정라헬 정란희 정명자 정미 정미영 정미희 정민나 정범종 정병근 정복여 정봉렬 정석봉 정선호 정세훈 정소슬 정수자 정순자 정승재 정승희 정안면 정애란 정양주 정여랑 정연홍 정영길 정영주 정영훈 정옥선 정와연 정완희 정용국 정우련 정우신 정우영 정원도 정유경 정윤옥 정은경

정은수 정이현 정인섭 정일관 정재은 정재훈 정종화 정지아 정지원 정지윤 정지은 정지창 정진 정진혁 정창근 정철훈 정태언 정현옥 정현우 정혜경 정혜주 정호승 정홍수 정훈교 정희성 조갑상 조규남 조기조 조달곤 조덕자 조동길 조명 조명숙 조문경 조미녀 조미진 조미희 조삼현 조선희 조성래 조성면 조성순(시) 조성순(평론) 조수경 조숙 조숙향 조영옥 조용숙 조윤진 조은덕 조인선 조재도 조재형(경북) 조재형(전북) 조정 조정애 조정환 조진태 조태봉 조태진 조향미

조현설 조현숙 조혜경 조혜영(고양) 종정순 주명숙 주석희 주선미 주수자 지성찬 지창영 진란 진보경 진순희 진연주 진은영 진준섭 차영호 차옥혜 차창룡 채길순 채명룡 채상근 채인숙 채정은 채종국 채향옥 채현선 천수호 천양희 천재강 천희순 최강민 최경주 최광임 최교진 최금왕 최기순 최기우 최기종 최두석 최명진 최미정 최백규 최법매 최병해 최상해 최석기 최성문 최성수 최수철 최승린 최승필 최연식 최영선 최영욱 최예원 최원식 최유성 최은미 최은숙

최은희 최인석 최일남 최일화 최자웅 최장락 최정진 최정희 최종득 최지애 최지인 최진석 최진영 최창근 최태랑 최필남 최현우 최형미 최형심 최형태 탁명주 태기수 태재명 표명희 표문순 표성배 피재현 하명희 하봉채 하성란 하재영 한경숙 한광현 한기욱 한만수 한명원 한병준 한상순 한상준 한성희 한수영 한승헌 한영수 한용국 한종근 한창훈 한희정 함민복 함순례 함진원 허광봉 허연 허영선 허영옥 허완 허유미 허은실 허은희 허의행 허장무 허정분

허종열 현택훈 홍경희 홍관희 홍기돈 홍명진 홍미자 홍사성 홍새라 홍성란 홍숙영 홍순영 홍양순 홍영수 홍은택 홍인기 홍일선 홍철기 황경란 황구하 황국명 황규관 황상순 황상희 황선만 황선열 황성규 황성일 황시운 황연진 황영미 황영진 황은덕 황은주 황인산 황인찬 황재학 황정숙 황종권 황주경 황지영 황현진 황희수 휘민

(1,325명)

애도하는 이들을 위해 발굴된 신록의 진혼곡

피재현『원더우먼 윤채선』

삶에 내포된 다양한 굴곡을 떠난 자의 형상으로 재현하다

자기를 겉으로 내보이지 않고 숨기면서 모호성의 문턱에 시를 데리고 가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는 때에 피재현의 시는 그와 정반대의 방향에서 자신의 거처를 만든다. 아주 사적인 체험이 보편적인 공감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시인이 애초부터 시를 통해 에헴, 하고 위세를 부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순정하고 습도 높은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관계를 탐구하는 시인의 눈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말해 준다.

—안도현 시인

걷는사람 시인선 31

피재현「원더우먼 윤채선」

도서출판 걷는사람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6길 51 서교자이빌 304호 Tel 02 323 2602 Fax 02 323 2603 e-mail walker2017@naver.com